

凝塊腎盂切石術*

慶明大學校 醫科大學 泌尿器科學教室

白宰昇·李聖俊

序 言

신경석의 원인은 비뇨기과 영역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속세 중의 하나이다. 신경석 제거술은 간혹 침습성 신장 내부 손상을 초래하는 물론 신경 많은 예에서 퇴회성 결합을 경험하고 있기도 한다. 또한 방사선 활영에서 성공적인 제거로 꾸준한 예에서도 빈번히 관찰되는 신경석의 조기 재발은 방사선 활영에 밀연하지 않은 미세한 친수결석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맨달리스(Manaldis)를 비롯하여 술중 방사선 활영술, 술중 초음파 활영술, 腎臟鏡, 술중 신우선제의 捕動性洗滌, 술후 효과판대 또는 腎臟鏡을 통한 절제제 세척 등 등을 수 있으나 모두 원인은 제거에는 미흡하다.

이와 저자들은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차극히 희망적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응고선우절석술에 관한 最新研究를 소개코자 한다.

歷 史

응고선우절석술(凝塊腎盂切石術, Coagulum Pyelolithotomy)은 1943년 Dees & Fox^{1,2)}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으로 술중 신우선에 결착과 함께抽出하는 신경석 제거술이다.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은 간혹 힘든 신경석 제거술 중 부득이 발생한 출혈의 결과 신우선에 형성된 혈액 응고물을 추출할 때 의외로 응고 속에 활동되어 나오는 신경석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非損傷의 응고선우절석술의 가능성을 충분히 대변해 주고 있다.

응고선우절석술은 개념상 이상처럼 볼 아니라 일상적인 신우절석술에 대해 응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Dees 방법 즉 pooled

human plasma 와 clotting globulin 을 이용한 젤膠화액은 혈액 응고보다 크게 강하지 않아 응고가 전립피아 선결석 주축에 실패하는 예가 빈번하였던 바 Dees & Fox 의 첫 보고 이후 신발기 보고³⁻⁸⁾만이 있을 뿐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응고선우절석술 개념의 부활은 1973년 Patel⁹⁾에 의해 이루어졌다. Patel은 Dees 방법의 원칙을 그대로 이용하는 반면 pooled fibrinogen으로 보다 강력한 젤膠화액을 형성하여 높은 성공률을 보고하였다.¹⁰⁾ 그후 fibrinogen의 함량을 달리하거나 환자 자신 또는 특정 供血者的 血漿에서 추출한 fibrinogen 을 이용한 응고선우절석술이 보고되었다.¹¹⁻¹³⁾ 그러나 肝炎 전파위험성으로 인하여 미국의 각 주들은 pooled fibrinogen의 사용을 불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FDA도 pooled fibrinogen의 제조에 대한 허가는 1977년 12월을 기해 취소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fibrinogen의 새로운 공급원이 추구되었다. 그 결과 cryoprecipitate 가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응고선우절석술이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¹⁴⁻²⁰⁾ cryoprecipitate 및 fresh frozen plasma 를 2-4°C 로 녹여 원심 분리한 때 회수되는 혈장의 分割片으로서 냉동상태로 보존되어 factor Ⅷ과 fibrinogen 이 고농도 함유되어 있다.²¹⁾ 고농도 fibrinogen 공급원으로서의 cryoprecipitate 는 Pool & Shannon²²⁾, Kasper 등²³⁾에 의해 확립되었다.

方 法

凝塊形成의 원리는 매우 단순하여 calcium chloride, thrombin, fibrinogen 的 상호작용으로 fibrinogen 을 fibrin 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Dees & Fox^{1,2)}의 보고 이후 다양한 修正方法이 소개되어 왔다. (Table 1) 이를 수정방법들은 응고 구성성분의 상호활성 뿐만 아니라 注入前 온도, 注入方法, 注入 後 응고제거시간 등에서 차기 다르다.

* 본 논문은 1982년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임상연구 보조비로 이루어졌음.

Table 1. Various methods used to perform coagulum pyelolithotomy

Series	Thrombin Concentration (U/ml)	Fibrinogen Source	Fibrinogen/Thrombin/10% CaCl ₂	Method of Injection	Waiting Period (min.)	Temp. (°C)
Patel ¹⁰	33	4% fibrinogen	8.3/1/0	Mix, then inject	7	37
Moore and Sweetser ⁶	50	9% fibrinogen	10/1/0	Mix, then inject	5	25
Dees ⁴	30	4% fibrinogen	9/1/10	Inject simultaneously	5	37
Broecker and Hackler ¹⁶	50	Cryoprecipitate	6.25/1/0.25	Inject simultaneously	10	25
Rathore and Harrison ¹¹	100	Plasma	7.5/0/1	Inject simultaneously	3-5	NS
Marshall, Lyon, and Scott ¹²	50	4% fibrinogen	5/1/0.2	Inject simultaneously	7	25
Fischer, Sonda, and Diokno ¹⁷	100	Cryoprecipitate	45/1/0.5	Mix, then inject	3	37
Sherer ¹⁴	67	Cryoprecipitate	?/1/0.18	Inject simultaneously	0	Warm
Seddon and Bonin ²⁴	17	Plasma	6.7/1/0.02	Mix, then inject	1.5	37
Tanagho, Diamantopoulos and Marshall ¹⁸	17	Cryoprecipitate	5/1/0.2	Inject simultaneously	5-7	25
Kalash, Young, Jr., and Harne ²⁰	0	Cryoprecipitate	10-15/0/1	Mix, then inject	5	37

* NS=not specified.

다. 수장방법의 저자들은 모두 응괴의 충분한 張力 強度와 높은 성공율을 보고하고 있다. 즉 응괴신우 절석술의 적절한 방법에 대한 동일된 견해는 아직 없으며, 이는 대부분의 보고에서 응괴의 張力 強度 측정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실시된 경우에도 측정방법이 각기 다른데서 기인한다.¹⁹

저자들은 먼저 여러 수장방법들^{4,6,8,11,12,14,16,17,18,20,21}을 도표(Table 1.)로 간단히 소개한 후 세부사항에 대한 해설을 略述하고 마지막으로 저작들의 추천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Fibrinogen 공급원

응괴신우 절석술에 이용되는 fibrinogen 공급원은 혈장, pooled fibrinogen, cryoprecipitate 등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각 공급원의 fibrinogen 농도는 혈장의 경우 2-3mg/cc이며, pooled fibrinogen은 4% 체액의 경우 40mg/cc이고, cryoprecipitate는 20-58mg/cc이다.^{14,25} Marshall^{12,22}은

형성된 응괴의 張力 強度는 fibrinogen 공급원의 fibrinogen 농도에 비례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cryoprecipitate의 경우 장력강도는 혈장의 10배 이상이며, pooled fibrinogen의 경우 稀釋程度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cryoprecipitate보다 높은 장력강도를 기대할 수 있다.^{19,25} 그러나 응괴신우 절석술에 충분한 응괴장력강도가 cryoprecipitate를 이용하여 증명되었으며¹¹⁻¹⁸ Rathore & Harrison¹¹은 혈자의 혈장으로도 성공적인 응괴신우 절석술을 보고하였다.

각 fibrinogen 공급원의 肝炎 전파위험성을 보면

局所適用의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정맥주사의 경우, pooled fibrinogen에서 每 unit 당 10-15%에 달하며 혈장이나 cryoprecipitate에서는 全血에서와 비슷하여 1% 미만이다.²⁶ 간염 바이러스는 粘膜 접촉으로 전파되므로 응괴신우 절석술과 같은 국소처용에도 전파 가능성을 높울 것이며, 이런 점에서 pooled fibrinogen을 사용할 경우 cryoprecipitate보다 훨씬 높은 간염 전파위험성이 기대된다. 현재까지 응괴신우 절석술과 연관되어 발생한 간염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Patel¹⁰은 pooled fibrinogen을 사용한 때 gamma globulin을 예방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장력강도, 낮은 간염전파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cryoprecipitate가 가장 적합한 fibrinogen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환자 자신의 특성인 供血者の 혈액에서 추출한 cryoprecipitate를 사용할 경우, 간염 전파위험성을 단연히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2. Thrombin 농도

thrombin 농도와 응괴 장력강도의 관계에 대한 Marshall¹²과 Burns & Finlayson¹⁹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5 units/cc 이상의 thrombin 농도에서는 thrombin 농도가 증가할수록 응괴 장력강도는 오히려 감소되는 반면 25 units/cc 이하의 농도에서는 thrombin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장력강도가 극소하나마 증가한다. 따라서 25 units/cc의 thrombin 농도에서 가장 강력한 응괴 장력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Burns & Finla-

yson¹⁹⁾은 25 units/cc 에서의 장력강도가 5 units/cc 에서 보다 강력하나 그 增加分은 25% 미만이고 5 units/cc 에서 25 units/cc 보다 응고형성이 크게 延遲된다는 실제 手術適應 時 이점동을 들어 5 unit /cc 의 thrombin 농도를 추천하고 있다.

cryoprecipitate 를 이용한 때에는 thrombin 을 침가할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보고²⁰⁾가 있다. 이들의 설명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ryoprecipitate 에는 응고기전의 内因性 및 外因性經路에 필요한 calcium 과 外因性經路에 필요한 tissue thromboplastin 을 제외한 모든 凝固因子가 들어있으며 이 중 tissue thromboplastin 은 신장을 포함한 생체내 모든 조직에 존재한다. 따라서 생체내에서는 cryoprecipitate 에 calcium 만을 첨가하여 자연적인 thrombin 생성을 圖謀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g. 1.). 이와 같이 형성된 응과의 정확한 장력강도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thrombin 的 省略으로 전반적인 응과신우전석술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1.의 thrombin 농도는 사용되는 thrombin 제제의 稀釋程度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本項의 thrombin 농도, 즉 응과구성 성분 중의 thrombin 含量과는 다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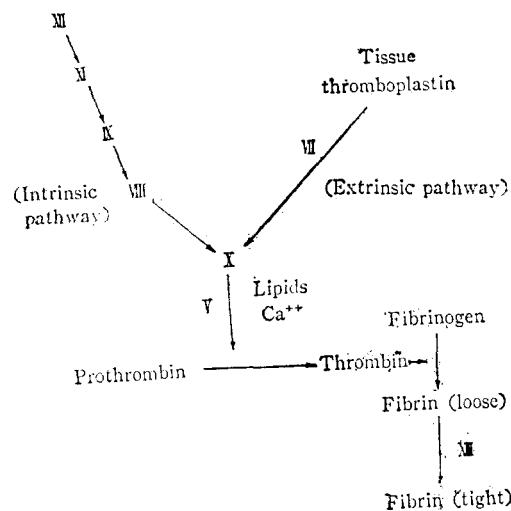


Fig. 1. Diagram of clotting mechanism.

3. Calcium chloride(Ca Cl_2) 험량

calcium chloride 의 침가 없이도 응과는 형성되나 장력강도는 매우 미약하다.²¹⁾ Burns & Finlayson¹⁹⁾은 9cc 의 cryoprecipitate 에 0.25cc 의 10% calcium chloride 를 침가하여 3배 강한 장력강

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calcium chloride 침가는 장력강도를 약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응고시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calcium chloride 는 이와 같이 장력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fibrinogen 공급원 내의 抗凝固劑를 中和시킬 목적으로, 또한 prothrombin 을 thrombin 으로 전환시키는 補助因子로서의 calcium 역할을 위하여 침가된다.

4. 응과구성성분의 상호합량

응과구성성분의 상호합량은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修正方法들에 따라 차이 달라 아직도 적절한 방법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응과신우전석술을 처음으로 시도하려는 비뇨기과 의사들은 다양한 수정방법에 당황하게 되고 방법선택에 고심하게 될 것이다. 저자들은 문헌고찰과 생체의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탈량으로 응과신우전석술을 시행하고 있다. 10ml의 腎盂腎盃容積을 기준으로 할 때, 4% pooled fibrinogen 을 이용할 경우 4% fibrinogen 9.6cc, 10% calcium chloride 0.2cc, thrombin(100 units/cc) 0.2cc의 비율이며, cryoprecipitate 를 이용할 경우 cryoprecipitate 9.7cc, 10% calcium chloride 0.2cc, thrombin(100units/cc) 0.1cc의 비율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합량의 철저한 준수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상기한 각 항목에서 이미 보았듯이 각 구성성분의 적절한 합량에는 상당한 여유가 있고 둘째, 실제 수술작용 시 신우내에 남아있는 尿와 응과가 형성되는 동안 신장에서 유출되는 尿 등으로 응과구성성분들은 회색될 것이고 회색정도 또한 신장의 기능, 환자의 수분공급상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주입방법

주입방법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방법은 thrombin-calcium chloride 혼합용액과 fibrinogen 공급원을個別의 通路를 통해 동시에 신우내로 주입하는 것이고 둘째 방법은 thrombin, calcium chloride, fibrinogen 모두를 주입전 혼합한 후 주입하는 것이다.

첫째 방법은 주입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우내에서 충분한 혼합을 기대할 수 없는 반면 둘째 방법은 주입전 충분한 혼합이

가능하나 응고가 개시되는 혼합 후 30초 이내에 주입을 완료해야 한다. 저자들의 경우 둘째 방법을택하고 있다.

6. 대기시간

응고구성성분의 주입후 응고제거 까지의 시간도 보고에 따라 즉시 제거에서 10분까지로 매우 다양하다(Table 1.) Burns & Finlayson¹⁹⁾은 1분, 5분, 10분에서 장력강도를 측정한 결과 10분에서 가장 강력한 장력강도를 보였으나 5분에서의 장력강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바 5분이 가장 저절한 시간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Burns & Finlayson¹⁹⁾의 연구가 生體外라는 것을 고려할 때 tissue thromboplastin이 존재하는 生體內에서는 5분이 生體外의 10분 보다 충분한 대기시간으로 사료된다.

7. 응고구성성분의 주입전 온도

많은 보고들이 응고구성성분을 37°C로 加温시킨 후 주입한 것을 추천하고 있다. Fisher & Sonda²⁸⁾는 37°C로 加温시킬 때 장력강도가 2배로 증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Marshall²⁵⁾과 Burns & Finlayson¹⁹⁾은 加温이 응고신우절석술의 절차 단을 복잡하게 할 뿐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37°C 이상의 加温은 fibrinogen의 燃性을 초래한다.¹⁶⁾

저자들은 加温없이 실시하고 있다.

8. 응고제거속도

응고신우절석술을 시행하여 보면 응고제거속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신속한 제거는 응고의 절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urns & Finlayson¹⁹⁾은 5in./min.를 적절한 속도로 추천하고 이는 응고를 20~30초에 걸쳐 완전히 제거할 때와 맞먹는 속도라고 하였다.

저자들이 실시하고 있는 응고신우절석술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부 요관을 노출시킨 후 polyethylene tubing이나 血管鉗子로 요관을 폐쇄시켜 신장 결석의 이동을 방지한다. 다음으로 신우를 노출시키고 16-gauge angiocatheter를 신우에 삽입하여 신장내의 尿를 완전히 흡입한 후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신우가 약간 팽창된 상태에서 신우신배의 容積을 추정한다. 추정된 용적에 따른 각 구성성분의量을 앞에서 소개한 비율에 맞춰 계산한 후 calcium chloride와 thrombin 용액은 같은 주사기에, thrombin 공급원은 별개의 주사기에 흡입하여 둔다. 이 때 fibrinogen 공급원에 몇방울의 methylene blue를 첨가하여 腎孟炎으로 두꺼워진 신우와 응고와의 간별을 용이하게 하고 응고가 절단되었을 때 腎臟鏡을 통한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같은 주사기에 흡입하여 혼합한 calcium chloride-thrombin 용액을 fibrinogen 공급원이 흡입되어 있는 주사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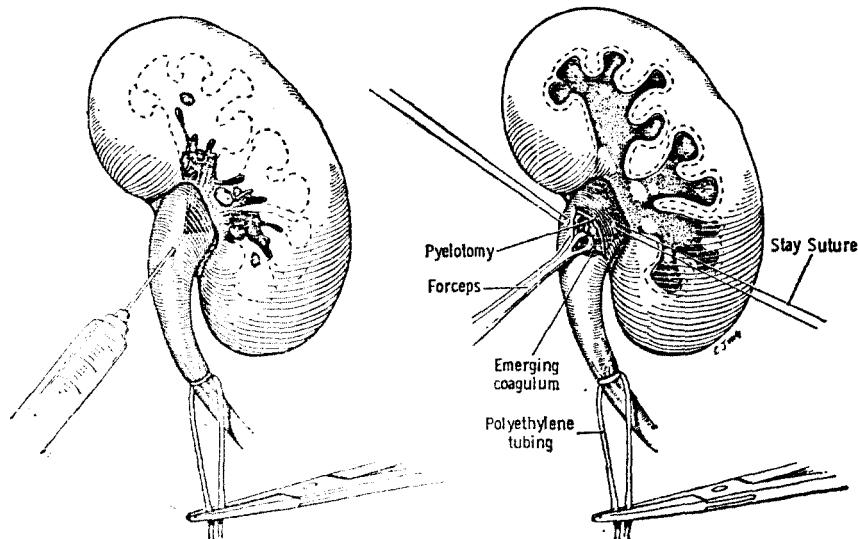


Fig. 2. Technique of coagulum pyelolithotomy. (Reproduced from: Fischer, C.P., Sonda, L.P., III, and Diokno, A.C.: Use of cryoprecipitate coagulum in extracting renal calculi. Urology, 15:6, 1980.)

주입한다. 이 주사기를 수회 反轉시켜 fibrinogen-calcium chloride-thrombin 혼액을 혼합하 혼합시킨 후 angiocatheter를 통해 30초 내에 선우에 주입시킨다. 이때에도 선우가 약간 팽창될 정도로充滿시킨다. 生體外 실현에서 응고는 혼합 30—45초 후에 개시되므로 30초 내의 주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입 후 5분에 선우절개를 가한 후 結石鉗子나 直角鉗子를 이용하여 응과를 20—30초에 걸쳐 서서히 抽出한다. (Fig. 2) 이때 下腎盃에 응과를 먼저 추출하는데 그 이유는 下腎盃의 infundibulum이 짧기 때문이다. 추출된 응과는 방사선환영을 실시하여 모든 결석이 한데 제거되었음을 확인한다.

臨床適用 및 應用

응과선우절석술의 임상적용은 조심스러운 종래전례이 강조되어 왔다.¹⁷⁾ 즉 선우선배의 화장이 없는 腎臟內腎盃이거나 또는 infundibulum 형착이 동반된 경우 성공적인 응과선우절석술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Fischer 등¹⁸⁾은 60대 이상의 강령 축적을 통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응용으로 선우선배의 화장이 없는 腎臟內腎盃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Fischer 등¹⁸⁾의 대가지 응용방법은 첫째, 단순 응과선우절석술 뒤에, 간부·요판절석술 및 동족 응과선우절석술 첫째, Gil-Vernet 방법의 진우절석술 뒷째, 非萎縮性 濢塊腎切石術 등이다. 이들은 이러한 응용방법으로 약 90%의 성공율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40%에서는 방사선환영에 나타나지 않는 결석들을 완전히 제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失敗要因

응과선우절석술의 실패요인으로는 infundibulum 형착으로 인한 응과의 절단이 가장 많고, 그외에도 파도한 加溫에 의한 fibrinogen의 羣性, 氣泡나 선우내 殘尿로 인한 선우선배의 不完全充満, 腎盃壁에 밀착된 결석 등을 들 수 있다.^{11,12)} 이중 fibrinogen 羣性에 의한 실패는 주입된 2cc의 fibrinogen 혼급원에 calcium chloride-thrombin 혼합용에 올랫방을 難溶하여 응과형성 여부를 확장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合併症

응과선우절석술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합

병증은 다음과 같다.

1. 肝 炎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 보고된 증례는 없으나 理論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fibrinogen 혼급원으로 cryoprecipitate를 이용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극소화시킬 수 있고 환자 자선이나 이정한供血者の 血液에서 추출한 cryoprecipitate를 사용할 경우 전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2. 血栓塞栓症

응과선우절석술 시행 중 thrombin의 腎盃靜脈逆流에 의한 血栓塞栓症의 발생 가능성이 몇몇 저작물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22,30)}

Novick 등²³⁾은 챠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고농도 thrombin을 사용한 경우 선우의 파다 팽창없이도 血栓塞栓症이 유발되며, 선우를 파다 팽창시킬 경우 저농도 thrombin에서도 血栓塞栓症이 유발된다고 보고하면서 다만 저농도 thrombin을 선우의 파다 팽창없이 사용한 경우만이 안전하였다고 하였다.

Pence³⁰⁾는 응과선우절석술 중 발생한 肺栓塞症으로 사망한 1례를 보고하면서 응과선우절석술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Fischer 등¹⁸⁾은 첫째, 그를 制量의 80배에 달하는 고농도 thrombin을 사용하였고 둘째, 주입 했다는 응과구성성분과 혼합하지 않은 챠 준비한 thrombin을 최종 혼합한 Pence 방법의 直輸을 적용하고 그들과 같이 저농도 thrombin을 주입해 둘은 응과구성성분과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응과선우절석술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임을 확실한다고 하였다.

血栓塞栓症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thrombin의 사용을 省略하고 선우를 파다 팽창시키지 않는 Kalash 등²⁰⁾의 방법이 크게 주목한다고 하겠다.

3. 蘭血栓 症と敗血症

선우 내에 세균이 존재할 경우 주입시 腎盃內壁의 증가로 腸底膜 또는 敗血症이 우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명확한 연과관계는 발견된 바 없다.

抽出 중 절단되어 선이나 선우에 남아 있게 되는 응과는 尿에 含有된 fibrinolysin에 의해 24시간내에 용해되므로 어떠한 합병증도 관찰되지 않는다.²⁷⁾

結語

응과선우절석술은 첫째, 결석을 좌절 조작하여

않아 결석이 分節되지 않음으로 殘留結石을 예방할 수 있으며 둘째, 방사선활영에 나타나지 않는 미세 결석이나 방사선투과성결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결석의 재발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셋째, 結石鉗子를 사용치 않음으로써 신우와 腎實質 손상을 피할 수 있으며 넷째, 신장의 可動性이 불필요하고, 따라서 수술시간도 단축되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진 신결석 제거술로서 모든 신결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신결석 제거술로 임상에 널리 應用되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한 절차의 단순화, 標準方法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Dees, J.E.: The use of an intrapelvic coagulum in pyelolithotomy: preliminary report. *South. Med. J.*, 36:167, 1943.
2. Dees, J.E. and Fox, H.: The properties of human fibrinogen coagulum:preliminary report. *J. Urol.*, 49:503, 1943.
3. Dees, J.E.: The use of a fibrinogen coagulum in pyelolithotomy. *J. Urol.*, 56:271, 1946.
4. Dees, J.E.: Coagulum pyelolithotomy. *J. Urol.*, 73:445, 1955.
5. Harrison, J.H. and Trichel, B.E.: Experiences with fibrin coagulum in pyelolithotomy. *J. Urol.*, 62:1, 1949.
6. Moore, T.D. and Sweetser, T.H., Jr.: Coagulum pelviolithotomy; an improved technique. *J. Urol.*, 67:579, 1952.
7. Dees, J.E.: Fibrinogen coagulum as aid in operative removal of renal calculi. *J. Clin. Invest.*, 23:576, 1944.
8. Hoffman, H.A.: Coagulum pyelolithotomy. *Amer. J. Surg.*, 79:598, 1950.
9. Patel, V.J.: The coagulum pyelolithotomy. *Brit. J. Surg.*, 60:230, 1973.
10. Patel, V.J.: Coagulum pyelolithotomy.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Las Vegas, Nevada, May 16-20, 1976.
11. Rathore, A. and Harrison, J.H.: Coagulum pyelolithotomy using autogenous plasma and bovine thrombin. *J. Urol.*, 116:8, 1976.
12. Marshall, S., Lyon, R.P. and Scott, M. P., Jr.: Further implications for coagulum pyelolithotomy. *J. Urol.*, 119:588, 1978.
13. Smith, P.J.B., Roberts, J.B.M., and Dunn, M.: Coagulum pyelolithotomy. *Brit. J. Urol.*, 50:298, 1978.
14. Sherer, J.F., Jr.: Cryoprecipitate coagulum pyelolithotomy. *J. Urol.*, 123:621, 1980.
15. Fischer, C.P., Sonda, L.P., III, and Diokno, A.C.: Further experience with cryoprecipitate coagulum in renal calculus surgery: a review of 60 cases. *J. Urol.*, 126:432, 1981.
16. Broecker, B.H., and Hackler, R.H.: Simplified coagulum pyelolithotomy using cryoprecipitate. *Urology*, 14:143, 1979.
17. Fischer, C.P., Sonda, L.P., III, and Diokno, A.C.: Use of cryoprecipitate coagulum in extracting renal calculi. *Urology*, 15:6, 1980.
18. Tanagho, E.A., Diamantopoulos, A., and Marshall, S.: Simplified approach to cryoprecipitate coagulum pyelolithotomy. *Urology*, 17:532, 1981.
19. Burns, J.R., and Finlayson, B.F.: Coagulum pyelolithotomy: tensile strength of coagula as a function of variables. *Urology*, 19:331, 1982.
20. Kalash, S.S., Young, J.D., Jr., and Harne, G.: Modification of cryoprecipitate coagulum pyelolithotomy technique. *Urology*, 19:467, 1982.
21. Pool, J.G.: High potency anti-hemophilic factor concentrate prepared from cryoglobulin precipitate. *Nature*, 203:316, 1964.
22. Pool, J.G., and Shannon, A.E.: Production of high-potency concentrates of antihemophilic globulin in a closed-bag system. *New Engl. J. Med.*, 273:1443, 1965.
23. Kasper, C.K., et al: Determinants of factor VIII recovery in cryoprecipitate. *Transfusion*, 15:312, 1975.
24. Seddon, J.M., and Bonin, R.E.: Coagulum pyelolithotomy. *Urology*, 9:564, 1977.

25. Marshall, S.: Commercial fibrinogen, autogenous plasma, whole blood, and cryoprecipitate for coagulum pyelolithotomy: a comparative study. *J. Urol.*, 119:310, 1978.
26. Redeker, A.: A controlled study of the safety of pooled plasma stored in the liquid state at 32 C. for six months. *Transfusion*, 8:60, 1968.
27. Ratnoff, O.D., and Potts, A.M.: The accelerating effect of calcium and other cations on the conversion of fibrinogen to fibrin. *J. Clin. Invest.*, 33:206, 1954.
28. Fischer, C.P., and Sonda, L.P.: Cryoprecipitate: its use and effects in canine coagulum pyelolithotomy. *Invest. Urol.*, 16:266, 1979.
29. Novicki D.E., et al: Pulmonary emboli associated with coagulum pyelolithotomy.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y 13, 1981.
30. Pence, J.R.: Death due to pulmonary emboli associated with coagulum pyelolithotomy. Society of Government Service Urologists Newsletter, vol. III, No.9. In: Fischer, C.P., Sonda, L.P., III, and Diokno, A.C.: Further experience with cryoprecipitate coagulum in renal calculus surgery: a review of 60 cases. *J. Urol.*, 126:432, 1981.